

트렌토 주와 알토 아디제 주 2개 주를 끼고 있고 돌로미테에서도 가장 길고 긴 계곡인 발 디 피엠메(Val Di Fiemme)와 연결된 오베레겐 스키 리조트(Obereggen Ski Resort)는 프레다쥬(Predazzo), 뎀페아고(Pampeago), 오베레겐 스키장 3개가 연결된 스키장으로 알디 아디제 주의 수도인 볼자노에서 20km로 약 20분이면 도달하고 약 5개월 동안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전 세계 최고의 스키장으로 선정된 오베레겐

라테마르 스키센터(Latemar Ski Center)는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Trentino Alto Adige)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키 리조트로 발 디 피엠메 오베레겐에서 가장 큰 스키장이다. 몇 분 안에 3개의 거대한 스키장을 곤돌라와 리프트가 편안하게 이동시켜 준다. 49km의 눈 덮인 슬로프, 어린이를 위한 쉬운 스키 슬로프,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멋진 블랙 슬로프는 6개나 있고 유럽 컵 스키 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특히 아이들을 스키 세계로 데려 가기에 좋은 곳을 찾고 있다면 세계문화유산인 돌로미테에 있는 라테마르(Latemar)가 최적이다. 산의 경사면을 돌아보는 숨 막히는 경치, 일출부터 일몰까지 펼쳐지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특별한 쇼, 눈 덮인 슬로프에서 완벽에 이르기까지 초보자부터 숙련된 스키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키어에게 만족을 선물한다.

오베레겐 스키 및 하이킹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은 노바 뽀넨페

(Nova Ponente)이다. 112km²의 면적을 자랑하는 이 마을은 사우스 티롤에서 가장 큰 지방 자치 단체 중 하나이다. 2016년에는 가장 많은 햇빛을 볼 수 있는 스키장으로 선정됐고, 전 세계 최고의 스키장에 몇 번이나 선정된 스키장이다.

오베레겐 & 라테마르 스키 센터(1,550~2,500m, 경사면만 40km)는 돌로미테 지역 전체에서 가장 편안한 스키장에 속하며, 체설 작업을 가장 잘하는 스키장으로 유명하다. 11월 28일 전후 개장 4월 중순 부활절 휴가를 마치고 폐장한다.

표 한 장으로 1,240km가 넘는 슬로프 이용

오베레겐은 60km의 슬로프를 자랑한다. 세계 최고의 스키장 평가 기관(Skiresort.info)에서 오베레겐과 라테마르 스키 센터가 17개의 상을 수상, '최고의 스키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오베레겐은 '슬로프 정설 작업 상'과 '60km 슬로프의 최고의 스키장 상'을 받았으며 유럽 최고의 스키장으로 선정된 25개 중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48km의 슬로프, 18개의 스키 리프트, 2개의 터보진 달리기와 스노우 파크, 두 곳의 어린이 스키 공원이 있다. 이 지역의 나무는 건축용으로 절단하고 남은 잔 나무들은 가구 제작에 쓰이고, 남은 톱밥 가루를 모아서 친환경 난방 장치를 만들어 독일 스키 리조트 평가(skiresort.de)에서 세계 최고의 스키 지역으로 뽑혔다.

DOLOMITE OBEREKGEN

스키어들의 천국, 돌로미테 오베레겐

글 사진 · 임덕용(꿈속의 알프스 등산학교)



친 환경 스키장이 된 이유는 매년 60만 배럴의 경유를 이 스키 리조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십 년을 수천 대의 거대한 트럭이 산길을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전 과정이 자동화되면서다. 요즘은 연소장에서 1인이 하루 3번 방문하여 3시간 동안 컴퓨터 점검만 하면 자동으로 나무를 태워 만든 뜨거운 물이 온 동네에 공급되고 스키장은 물론 주변 수십 개의 호텔과 수백 가구에 난방과 온수가 전달되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스키 리프트 한 장으로 주변의 알페 루시아(Alpe Lusia), 알페 체르미스(Alpe Cermis), 요클린(Jochgrimm-Oclini) 스키 센터를 모두 탈 수 있어, 총 111km의 각종 슬로프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키장인 돌로미테 슈퍼 스키(Dolomiti Super Ski)의 연합회로 표 한 장으로 1,240km가 넘는 슬로프에서 스키를 탈 수 있다.

스키장 내에는 유럽 최고의 바이타(산에 있는 식당으로 숙박 시설은 없다) 상을 받은 바이타를 포함 55개의 식당이 있어 여러 토속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폭설이 내렸을 경우 눈사태 방지를 위해 산에

설치되어 있는 눈사태 방지 대포는 물론 인공설을 만드는 눈 대포가 200개가 넘게 있어 최상의 슬로프와 정설 작업을 보장한다.

111km의 슬로프와 390km 경사면 갖춘 광활한 스키장

숫자로 본다면 1,550~2,500m의 고도를 유지하며, 슬로프 난이도는 14%가 극히 어려운 블랙 슬로프, 67%는 레드와 그린 중간, 19%는 초보자를 위한 옐로우 슬로프이다. 또한 111km의 슬로프와 390km의 경사면을 이룬다.

부모들이 스키를 즐기기 위해 스키장 유치원이며 어린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과 미니 클럽이 제공하는 킨더 파크(Kinderpark)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유치원 선생 자격자들이 스키가 아닌 눈과 썰매, 그림이나 게임 등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크로스 컨트리 스키 및 겨울 하이킹을 위한 돌로미테의 멋진 전경과 매혹적인 눈 덮인 풍경 속을 달리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크로스 컨트리 트레일이 있다. 몬테 산 피에트로 마을과 노바 폰테(Nova Ponente) 마을, 코르노 비앙코(Corno Bianco)와 코르노 네로(Corno Nero)의 두 산 사이에 약 100km의 크로스 컨트리 트레일이 있다.

주변 산을 끼고 도는 산악 스키는 규모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유럽의 스키장이 국내 스키장과 다른 점은 슬로프만이 아니고 산길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를 설피나 산악 스키를 신고 오를 수 있게 배려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산악인을 위해 슬로프에만 산

1 야간 스키를 개장하는 유일한 스키장이다. 대부분 돌로미테 스키장들은 야간 스키를 하지 않거나 주 1회만 한다.
2 아주 작은 오베레겐 마을은 대부분 목축업이 주 생활 방법이나 여름과 겨울철에는 관광 산업으로 전환한다.
3 3개의 입체적인 산장 발코니가 튀어 나온 오베를 바이타는 초현대적이다. 그 앞에서 카빙 스키를 즐기고 있다.
4 라테마르 정상 아래에서 슬로프를 질주하는 스키어.
5 유럽 최고의 바이타(산의 식당) 상을 받은 마이어 바이타의 화려한 토속 음식.
6 라테마르 정상 아래 레드 슬로프에서 스키를 즐기는 부부.





1

장이나 바이타가 있는 게 아니라 산속 깊이 숨어있어 산행 중 식사나 대피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한다.

필자도 집에서 15~30분 거리에 도착할 수 있는 스키장이 10여 군데가 넘지만 오베레겐 스키장을 가장 선호한다. 24시간 화장실이 오픈 되어 있으며, 24시간 신발을 신을 수 있고, 옷을 갈아입고, 불필요 장비를 무상 보관해 주는 대기실이 문을 열어 새벽 산 스키를 하는 사람이 즐겨 찾는다. 보통 일출을 산 정상에서 보기 위해서는 새벽 5시 전에 출발해야 하는데 이런 등반을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다. 일출을 보는 감동을 가슴에 가득 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귀가해서 샤워하고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하는 게 겨울철 보통 하루의 일

과이다.

오베레겐의 모든 슬로프를 개장 전인 8시 30분전까지 업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숲속의 산길은 24시간 자신만 있으면 업힐 가능하다. 몇 번이고 오베레겐 라테마르의 모든 슬로프를 연장해서 하루에 오르고 싶었던 생각이 4월 중순 스키장이 폐장하면서 몇 번이고 한 적이 있다. 거의 12시간의 업 힐과 다운 힐. 필자가 살아 있다는 것을 몸으로 정신으로 영혼으로 스스로 증명을 한 셈이다.

후배 스키 선수들과 오베레겐에서 스키 활강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오수아에서 열린 산악 스키 경기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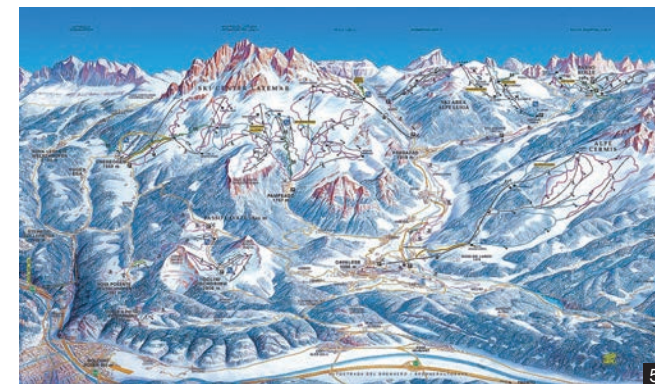


4

국제 심판 연수(Referee Course Aussois, France)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산악 스키 월드컵 경기(World Cup race)에 참가하기 위해 김원명, 이재수, 김동현, 박남용씨가 방문했다. 4명 모두 KSMA SKI LEV 1, KSIA ALPINE SKI INSTRUCTOR LEV 1-2 자격증이 있는 산악인들이다.

이태리 라스포르티바 본사 후원으로 많은 장비를 선수 지원 경비로 구입했다. 또한 새로 신은 스키화와 스키로 심판 연수와 시험, 월드컵 대회 준비 운동으로 첫 날은 오베레겐에서 테스트를 했다. 같이 트랜스 스키를 하며 모든 정상을 오르고 싶었지만 보다 큰 목적을 위해 온 4명의 후배들과 다음을 기약했다. 🏔️

- 1 스키장의 산책로를 스키로 올라가는 도미니크 뒤로 일출이 솟아오른다. 매년 4월 중순이면 트랜스 스키 오베레겐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12시간 걸린다.
- 2 한국의 국가대표팀 김원용, 박남용 선수가 월드컵 참가를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뒤편으로 셀라 암군의 멋진 파노라마가 보인다.
- 3 오베레겐 마케팅 팀장인 토머스가 국대팀을 환영하며 스키장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지역 신문에 기사화 하겠다고 같이 촬영했고, 작은 기념품을 선물했다. 왼쪽부터 이재수, 김동현, 토머스, 김원명, 박남용, 필자.
- 4 국대팀의 김원명 선수가 업힐 후 다운힐을 하고 있다.
- 5 오베레겐 스키장 개념도. 2개 주의 3개 도시가 만나는 거대한 스키장이다.



5

INFO

2019년 12월 17~19일 프랑스 사부아(France Savoie) 오수아(Aussois) 산악스키 국제심판 교육 및 자격 테스트 참가 결과 보고

글 · 이재수 선수

12월 20~21일 ISMF 월드컵 시리즈대회에 심판참관을 위해 13~23일 간 프랑스, 이태리를 다녀왔다. ISMF 2019년 6월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 경기규정과 규칙 일부 개정 사항이 많지만 대회 참가 시 경기진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ISMF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다.

1. 경기규정과 규칙 일부 개정 사항

- 1) 스프린터 경기에 업 힐 고도 차 최대 80m 추가, 두 번째 보행구간에는 4/3개 평행트랙, 다섯 번째 피니쉬의 40/20m구간, 3/2개의 주행 트랙 이용 변경
- 2) 버티컬 레이스의 트랙 최소 평균 구 배치는 15% 추가
- 3) 경기트랙에서 부러진 스키 폴, 스키, 바인딩은 제외하고 경기 중에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나 심판진이 사전에 직접 지정한 곳은 예외사항 추가
- 4) 여권 또는 국가 ID카드(주최자제공)의 원본, 또는 사본을 경기용 백팩이나 본인 레이싱복 내부에 경기 내내 보관해야 한다(선수단 코치보관 삭제)
- 5) 2019/2020년 스키 플레이트 부착 브레이크 사용이 내년 시즌인 2021/2022은 필수 보유장비로 변경
- 6) 스키 바인딩(프레이트 포함), 부츠 최소 중량 기준이 2짜에서 1짜으로 변경
*스키: 남자 750, 여자 700그램, 부츠: 남자 500, 여자 450그램
- 7) 아이 웨어(구)선글라스)의 가시, 자외선 투과율 기준 추가
*주간, 야간, 주 야간, 백야기준 제정 세부기준은 ismf 홈페이지 참고
- 8) 레이스 시작 단계별 시간 변경
*스프린터 레이스의 정속을 알리는 스타트 4단계는 출발 15/30초 전으로 변경
*모든 레이스의 스타트 5단계 "Take your marks" 출발 8(15)/10초 전으로 변경
- 9) 벌칙
*부정 출발 30초/1분 20초 확대 변경
*게이트 미 통과 시 (다운 힐) 레이스 별 각각 3/1분, 1분/20초 축소 변경
*레이스 대회 심판원의 결정을 무시하면 레이스 심사 위원장 및 ISMF는 적절한 패널티 적용 신설
*심판이 브리핑에서 제시한 ISMF 목록의 보충 장비를 준비하지 않으면 실격 추가 신설
- 10) 인디 비주얼, 팀 레이스인 경우 리프레쉬 포인트는 업 힐이 시작되는 레이스 중간 지점 근처의 변경 구역에서 분리 설치하는 것과, 길이는 15~20/ 15~30 미터로 변경



업힐 훈련 중인 국대팀.